

# 베트남 투자뉴스


## KOTRA 해외시장뉴스 · 무역관 뉴스



### 인구 1억 베트남, 스마트·디지털 소비로 확대되는 유아용품 시장

베트남 유아용품 시장은 가처분 소득 및 생활 수준 향상,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베트남의 12세 미만 아동 수는 약 2060만 명(전체 인구의 약 20%), 가임기 여성(15~49세)은 약 5070만 명(전체 인구의 약 50%)에 이르는 등 유아용품 시장성장에 긍정적인

사회인구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출산률 감소기조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 볼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Nielsen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약 7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6~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1인당 가처분 소득증가에 따라 유아용품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와의 FTA체결 및 SNS 활성화에 대한 반사효과로 고품질의 수입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유아용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Z세대 부모들은 현재 유아용품 시장을 이끄는 주요 고객층이다. 이들은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과 가격 외에도 품질, 자연친화 소재사용여부, 안정성 등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고 있다. ...

 **[원문 바로가기]**



### 소비 심리를 잡다, 베트남 BNPL 시장

‘BNPL(Buy Now Pay Later)’은 ‘선구매후결제’를 의미해 최근 주목 받는 결제 방식이다. 말 그대로, 소비자가 BNPL 방식을 선택해 결제하면 BNPL 사업자가 가맹점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소비자가 BNPL 사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신용카드와 유사한 방식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

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점수와 관련 증빙이 필요한 반면, BNPL은 금융 소외 계층까지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별성으로 신파일러(Thin Filer)와 모바일 플랫폼에 친숙한 젊은 세대 중심으로 BNPL 주 이용층이 형성됐다. 신파일러는 금융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금융 거래가 부족한 금융 이력 부족자를 의미한다. 2019년 초부터 베트남에 BNPL이 도입되기 시작 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성장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BNPL 도입률은 서비스가 초기에 도입된 북유럽 및 대양주 지역이나 아세안 인근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결제액 기준으로는 아세안 지역에서 말레이시아보다도 높다고 분석했다. ...

 **[원문 바로가기]**

\* 사진 클릭 시 원문 기사로 이동



### 제조업 PMI 3개월 연속 50 이하, 경기 위축 지속

제조업 부진 지속됨. 2월 PMI 49.2로 기준선 하회함. 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49.2(1월 48.9)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선 50을 하회함. 해외 신규 주문 4개월 연속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수요 부진이 지속됨.



### 2025년 1~2월 수출증가 지속되나 주요국과의 무역적자 확대

베트남의 2025년 첫 2개월 수출입이 증가함. 2025년 1~2월 총 교역액 127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수출 642.7억 달러(+8.4%), 수입 628억 달러(+15.9%)로 무역흑자는 14.7억 달러 기록함. 주요 수출 품목은 공산품(88.7%), 농림수산물(10.5%)이며, 수입은 생산재(원자재·중간재, 93.7%)가 대부분을 차지함. 중국·한국 등 주요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가 과제로 남아 있음



### 하노이시, 홍역 확산

하노이시에서 홍역 환자 745명 발생했으며, 전년 대비 급증함. 하노이시에서는 2월 28일 ~ 3월 7일 120건의 홍역이 발생했으며, 2025년 들어 총 745건 보고됨. 지난해, 베트남 전체 홍역 확정 건수는 7,583건, 1/4 가량이 9개월 이하 영아에서 발생함.



### 성평등 정책 진전, 여전히 격차 존재

베트남 내 리더십·소득·교육 등 성별 격차 지속됨. 베트남 사회과학원(VASS) 조사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리더십, 소득, 의료, 교육 등에서 격차 존재. 2024년 세계경제포럼(WEF) 성격차지수 72위 유지했으며,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을 상회함. 전문가들은 여성의 기술 접근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함.



###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인센티브에 대한 신규 법령 발표

베트남 정부는 재생 에너지 및 신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전기법 특정조항 시행을 담은 법령 58/2025/ND-CP를 발표함.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가전력망에 연결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되며,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해상구역 사용료, 토지사용료 등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가 지원됨.



## 베트남 경제지표 (USD 백만 / 증감률 %)

### FDI 국별(1988.1.1.~2025.1.31. 누계)

- 한국 92,117 (10,128건)
- 싱가포르 84,136 (3,951건)
- 일본 78,280 (5,512건)

### FDI 산업별(2024.12.20. 기준 누계)

- 제조, 가공 310,420 (17,962건)
- 부동산 경영 73,999 (1,224건)
-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41,927 (197건)

### 수출입 현황(2025.1. 누계)

- 수출 33,100
- 수입 30,000

### 한-베트남 교역 동향(2025.1. 누계)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4,359
-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 2,561
- 무역수지 1,798